

“국민 여러분” 미국 버전 ‘더 컴퍼니 유 킵’ 호평

KBS 2TV 드라마 ‘국민 여러분’의 미국판 ‘더 컴퍼니 유 킵(The Company You Keep)’이 ABC 방송에서 공개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BS 측은 지난 19일 ABC서 첫 방송한 ‘컴퍼니 유 킵’(The Company You Keep)’이 로튼 토마토 관객 지수 82%, IMDb에서 7.5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언론의 찬사도 이어졌다. 유에스애이 투데이는 “로맨틱하고 세시한 드라마와 스릴 넘치는 유머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평했고, 콜라이더(Collider)는 “섹시한 로맨스와 가족 드라마의 조화”라며 칭찬했다.

2019년 KBS에서 방송한 ‘국민 여러분’은 경찰과 결



▲ KBS 드라마 ‘국민 여러분’의 미국판 ‘더 컴퍼니 유 킵’ 포스터. 사진=KBS

이 두 번째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콘텐츠의 상품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흔하게 된 사기꾼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며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코믹 범죄 드라마다. 배우 최시원과 이유영이 주연으로 출연했다. 미국판에서는 배우 마일로 벤티밀리아와 캐서린 해나 킴이 주연했다.

줄리아 코헨과 ‘레전드 오브 투모로우’의 필 클레어,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감독 존 추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총 10회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KBS 드라마 포맷의 미국 진출은 ‘굿닥터’에 이어 ‘국민 여러분’

한국 넷플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18개국서 1위 … 전체 2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가이틀 연속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2위를 차지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는 19일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2위에 진입한 뒤 전날 기준 이를 연속으로 순위를 유지했다.

지역·국가별로는 한국, 니카라과, 대만, 도미니카 공화국,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볼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카타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페루, 필리핀, 홍콩 등 18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한편, 이날 현재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는 리즈 위더스푼과 애쉬튼 커쳐 주연의 ‘유아 플레이스 오어 마인’이다.

칠레,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지역에도 2위를 차지해 곧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소설 원작인 이 영화는 평범한 회사원이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담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뒤 일상을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다. 배우 전우희가 스마트폰을 분실한 스타트업 회사 마케터 ‘나미’ 역을 맡았고, 나미의 스마트폰을 주워 모든 신상을 파악한 뒤 나미에게 접근하는 ‘준영’ 역은 임시완이 맡았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백천 운명철학원

뉴욕, 맨하탄에서 20년 만에 Laguna Woods, Irvine으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선생



백천 선생(白泉先生)

한국역술인협회 미주지구 회장
국제 예언가협회 이사장
1976. 한국역술인협회 정회원
1977. 대한 경심연합회 중앙감찰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2008. 한국 역술인협회 부회장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신수재주궁초재이방택일이아상호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애정운/부부운/자녀운/직업운/사업운/재물운/
학업운/주택구입시기/이사운/집매매운/
풍수지리/방향/건강운/대인관계/동업운/
관제/소송/삼재풀이/방책예방/
*부부 특별 상담(숫자운)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전화상담만 받습니다.

전화[213] 500-6363
상담[909] 347-0505

*Zelle 또는 Venmo로 송금해주세요.

2381 Via Mariposa W #2h, Laguna Woods, CA 92637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 롤링스톤스 새 앨범에 연주자로 참여



▲ 롤링스톤스의 새 앨범에 연주자로 참여하는 폴 매카트니. 사진=guitar.com

록 음악계 ‘전설의 라이벌’인 비틀스와 롤링스톤스가 데뷔한 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앨범에서 합을 맞춘다.

지난 23일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CNN 등에 따르면 비틀스 멤버 폴 매카트니(80)가 롤링스톤스의 새 앨범에 연주자로 참여한다. 현재 롤링스톤스는 새 앨범을 한창 제작 중인데, 여기에 수록될 곡 중 하나에 매카트니가 베이스를 연주할 예정이다.

버라이어티는 비틀스의 다른 생존 멤버인 드러머 링고 스타도 이 앨범에 참가할지 모른다고 했으나 그룹 대변인은 매카트니만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카트니가 어떤 곡에 베이스 음을 넣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롤링스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녹음실에서 한창 새 앨범을 녹음 중으로, 이미 편곡 단계라고 버라이어티는 전했다.

롤링스톤스는 2005년 ‘어 비거 뱅’(A Bigger Bang) 이후로 신곡 앨범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2016년 그들의 블루스 음악을 새로 녹음한 ‘블루 앤 로운섬’(Blue & Lonesome)을 발매한 바 있다.

영국을 대표하는 록 밴드인 비틀스와 롤링스톤스는 1960년대 ‘브리티시 인베이션’의 쌍두마차로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비틀스는 1970년 해체했지만 롤링스톤스는 지금껏 멤버들이 함께 활발히 공연하며 활동하고 있다.